



5학년 1반의 신문, 오일 신문 | 2024년 12월 09일

오일신문, 1주년 되어...

오일신문이 1주년을 맞이하였다. 오일신문은 5학년 1반 학생들끼리 신문을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로 시작하였다고 손유진 기자는 밝혔다. 오일 신문은 지난 해 2023년 12월 6일에 처음 발행되었으며 오로지 ABS 오일신문 팀원들의 힘으로 만들어 의미가 크다. 또한 대가나 비용이 없는데도 1년 동안 오일신문을 유지해왔던 이유는 신문을 만드는 일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다양한 소식을 전할 수 있고, 5학년 1반이라는 추억을 기억 할 수 있는 물질적인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오일신문을 만들면서 다시다난 했지만 부족했던 부분을 감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오일신문은 초등학교 5, 6학년의 추억으로 남기고 1년 동안 오일 신문을 작업하며 손유진 기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오일신문 발행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였다. 오일신문은 1월은 쉬고 2월을 마지막으로 발행을 마무리한다.

2024년 크리스마스 이번 연도는

어떻게 되나...

오는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 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주로 성대하게 파티를 한다. 옛날에는 그럭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다양한 행사, 파티를 한다. 특히 작년 2023년 크리스마스에서는 2023학년도 5학년 1반 학생들끼리 케이크도 나누어 먹고, 함께 교실도 꾸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또한 황재원 학생이 아주 큰 곰돌이 인형을 들고오기도 했으나, 올해 2024년에는 각자 다른 반이기도 하고, 스케줄 문제 등으로 인하여 모이진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함께 5학년 1반의 크리스마스 추억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손유진 기자

2025학년도 전

교학생임원선거, 이번에는 누가

출마하나...?

현재 전교회장인 전지우 학생의 뒤를 이어 다음 전교회장이 될 학생을 뽑는 2025학년도 전교학생임원선거가 오는 20일 치러집니다. 오일신문 측이 조사한 결과, 5학년 후보는 총 7명으로(가나다 순) 강현민, 김은성, 배문주, 육민아, 이민재, 차현탁 학생들이 나갈 예정입니다.

4학년 학생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확정되면 오일신문 속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학생임원선거는 오는 20일 학생들의 공약을 방송으로 듣고, 투표는 전자투표로 진행될 예

정입니다. 2025학년도의

안남초등학교를 이끌어갈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손유진 기자

오일신문은 후보 분을 응원합니다.

북한, 7차 핵실험 준비 완료 [한겨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미국 대선 전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완료했다는 정황이 자화인됐다. 핵실험 결정부터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도 매우 짧을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지난 4일 활동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핵실험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특별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과 비교해 소소한 변화만 포착됐다. 유일한 중요한 변화는 지난 4~6월 사이 3번 간도 출입구 비로 비깥에 있던 기술 지원 건물이 철거된 것”이라며 “별 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은 것은 7차 핵실험 준비 직업이 사실상 완료됐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간도에서 강행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사이트는 “시기는 전적으로 김정은 손에 달려있다”며 “정치적 목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준비는 이미 완료됐고 남은 부분도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어 핵실험 실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상보다 짧아질 수 있다. 아무런 사전 징후없이 핵실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여름 홍수로 평화된 주변 도로도 장비됐다. 사이트는 “다리 유실, 산사태 등 폭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했고 이후 북부 시험 지역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주요 행정지원 구역에서 차량이나 사람의 이동은 관찰되지 않았다. 과거 CSIS 연구를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및 핵 실험은 미국 대통령 및 중간 선수가 있는 해에 증기하는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트럼프·오바마 행정부 모두 출범 직후 북한의 핵 실험을 경험했다. 지난달 신원시 국기인보설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 대선 시점을 포함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겨레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ABS STUDIO 신작, 촬영 확정...?

범행도시



범행도사/뽕뽕
오일오락실 이후
신작의 로고가 무엇
인지 나타내고 있다.
[ABS STUDIO
제작]

지난 11월 26일, ABS 측에서 ‘ABS STUDIO 작품 제작 기획안’을 ABS 영상 제작 신부 기관인 ABS

STUDIO에 제출하고, 27일 김독과 작가, ABS STUDIO 대표가 전원 승인하면서 신작 제작은 확정되었다. ABS STUDIO는 2024년 1분기에 ‘범행도시’, 3분기에 ‘뽕뽕 오일오락실’, 2025년 1분기에 신작이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ABS STUDIO 신작은 학교폭력의 주제로 한 드라마이며, 2부작으로 각각 15분, 총 30분 분량의 작품이 방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제작과 출연자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출연자가 부족하면 5학년 1반 학생 외의 학생을 넣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ABS STUDIO 신작의 작가인 손유진은 대본을 작성 중에 있으며, 김독은 박성빈이며, 오일 신문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ABS STUDIO는 기회가 된다면 공모전 도 제출할 계획입니다. 촬영은 방학이 시작하고 나서 비로 출연자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촬영 일자를 잡을 예정이며, 리허설을 모두 완벽하게 완료한 후에 본 촬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편집과 포스터로 작업을 모두 마친 후에 방영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영 예정일자는 2월 중순이며, 정확한 날짜가 전해지는 대로 오일 신문 측으로 소식을 전달하여 속보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밝혔다.

손유진 기자
2024. 12. 09. / No. 11
기사의 저작권은 ABS, 오일 신문에 있습니다.

2024학년도 안남초등학교 학예회, 11월 29일 실시되어...

지난 11월 29일 2024학년도 안남초등학교 학예회가 실시되었다. 1부는 저학년과 합주부, 병고 후 학교(병풍댄스 밴)이 참여, 2부는 1부와 동일하게 합주부가 참여 했으며, 고학년도 참여하였다. 2부에서는 (공연 순) 합주부 공연인 '월광아적심 외 1곡', 4학년 난타부의 '영남시물놀이', 5학년 음악 줄넘기부의 '뱅뱅뱅', 6학년의 댄스부의 'Boom Boom Bass와 How Sweet'가 공연 되었으며, 두를 이어 4학년 합창부의 '꿈꾸지 않으면', 6학년 음악 줄넘기의 'Jump over the flower', 5학년 난타부의 '열매! 소고춤', 5학년 합창부의 '풍선', 4학년 음악줄넘기의 '오르트 구름', 6학년 합창부의 '비름의 멜로디 미당을 나온 암탉 OST', 5학년 댄스부의 'K-POP의 진수', 4학년 댄스부의 '인연 (부처춤)', 마지막으로 6학년의 '난타 공연'으로 2024학년도 안남초등학교 학예회의 마지막 공연을 장식하였다. 학예회 영상은 안남초등학교 공식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박성빈 기자



2024학년도 안남초등학교의 사회자들이 사회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성, 전자유, 곽진욱



1부와 2부 첫 번째 순서인 합주부가 공연을 하고 있다.



6학년 댄스부가 공연을 하고 있다.



6학년 음악 줄넘기부가 공연을 하고 있다.

안남초등학교 공식 유튜브 캡처

[이미지 저작권은 안남초등학교에게 있으나, 기사의 저작권은 ABS 오일신문 측에 있습니다.]



6학년 합창부가 공연을 하고 있다.



6학년 난타부가 공연을 하고 있다.

안남초등학교 수목 '메타세콰이어 나무' 전정 및 벌목

안남초등학교에 식생하고 있는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2024년 12월 5일부터 12월 8일 사이에 일부는 전정되고 일부는 벌목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안남초등학교의 옹벽은 재해취약 설인 붕괴위험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매년 교육지원청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옹벽 상부에 있는 거목이 옹벽하중에 영향을 주어, 붕괴 위험 가능성이 있으니 거목 제거 또는 높이를 2~3m 이내로 절단을 요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안남초등학교에 식생하고 있는 메타세콰이어 중 일부는 전정하고 일부는 벌목하게 된 것이다. 수목 전정공사를 실시하는 동안, 안남초등학교는 학교종이를 통하여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출입구를 변경한다는 안내를 보내었다. 이 안내에는 대방아파트 쪽 후문은 출입이 금지되고, 정문으로 우회하여 등교하라고 안남초등학교의 안내가 있었다.

박성빈 기자



안남초등학교 운동장에 수목이 쓰러져있다. (오일신문 측 촬영)

여 불참에 '윤 탄핵안' 투표불성립…김건희 특검 세번째 폐기 [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투표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30 0명의 재적의원 중 200명을 채우지 못해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투표 불성립은 현정사상 여섯 번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20분께 투표 종료를 선언한 후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5일 0시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대의민주주의 침해 등 헌법·계엄법·형법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이날 무기명 투표는 오후 6시 17분께 시작했지만 우 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을 미루며 탄핵 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하지만 약 3시간 동안의 대기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 명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195명만 참석해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먼저 상정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만 참여한 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107명의 의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표결 참여를 호소했고,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에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다만 김상욱 의원은 "당론에 따라 탄핵안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산회를 선언하면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 사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은 국가 중대

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장에 모여 대기했고, 본회의가 산회된 직후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탄핵보다 더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은 이 비상한 시국을 맞아 집권여당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적극적인 정국 수습책을 마련해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부결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산회된 후 "매주 토요일 (윤석열) 탄핵과 (김건희) 특검을 따바따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가결을 촉구하는 주말 집회를 동력 삼아 국민의힘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

열 탄핵 소추안을 즉각 재추진하겠다"며 "내란 상태를 하루빨리 종식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인 것을 고려하면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1대 국회 때인 지난 번째 재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4표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2월 첫 재표결에서는 이탈표가 한 표도 없었고, 지난 10월 두 번째 재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4표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대통령, 끈금없는 비상계엄령 선포? [BBC NEWS 코리아] [일부 수정]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밤, 야당의 정치적 공격을 언급한 후 "혼란을 초래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한국에서 계엄령이 마지막으로 선포된 것은 1979년으로, 당시 군사 독재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중 암사로디었을 때였다. 이후 1987년 한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한 이후 계엄령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라는 이유를 들어 계엄령을 발동하며 이 위험한 정치를 다시 꺼냈다. 윤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보다 북한에 대한 훨씬 강경한 입장을 취해 온 인물로, 정치적 야당을 증거 없이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군이 일시적으로

통치를 맡게 되었고, 국회에는 병력과 경찰에 배치되었으며, 헬리콥터가 국회의사당 운동장에 착륙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언론과 출판물 역시 군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야당은 윤 대통령의 선언을 즉각 불법적이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소속당인 국민의 힘 당 대표(한동훈) 조차도 윤 대통령의 행동을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여 계엄령 선포를 무효화하는 표결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면서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 달라"라고 말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이 요청에 응답해 삼엄한

경비가 이뤄진 국회 밖으로 모였다. 시위대는 "계엄령 반대! 계엄령 반대!"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서 중계하던 언론들은 국회 입구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 약간 충돌이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중무장한 군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은 폭력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다. 국회의원 또한 방어벽을 피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4일 새벽 1시 1분,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명,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을 선포하였다.

영국 언론인 BBC NEWS에서는 기사를 번역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시선에서 본 것이 있으므로 한국의 기사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여의도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헬기가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려 하는데 국회 보좌관이 소화기를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떠나 홀가분했나.. 행복 '퇴사짤'→뉴진스 언팔 [OSEN]

'뉴진스 엄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접 퇴사를 알렸다. 민희진 전 대표는 20일 오후 자신의 SNS에 별다른 멘트 없이 사진 한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은 '퇴사짤'이었다. '퇴사'라고 적힌 카드를 들고 있는 캐릭터가 황급히 웃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는 한 손을 들고 있는 이모지를 글 대신 덧붙이며 현재의 심경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앞서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합니다. 또한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하이브에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 합니디"라고 직접 입장장을 밝힌 바 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 내에서 뉴진스를 지켜내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였디"라며,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으로 결단을 하게 됐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사내이사 사임 소식과 함께 개인 SNS도 정비했다. '퇴사짤'을 게시하는가 하면, 어도어와 뉴진스 등 모든 팔로우도 끊었다. 뉴진

스를 제작하며 '뉴진스 엄마'라는 수식 어를 얻었던 그가 뉴진스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낸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미경 기자

seon@osen.co.kr

- © ABS 오일신문



민희진 개인 SNS에 게시한 사진이다.

© ABS 오일신문

뉴진스, 전속계약 소송에도 꿋꿋...“더 이상 어도어 소속 아냐”

[매일경제]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그룹 뉴진스를 불잡기 위해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뉴진스는 “어도어와 하이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며 기준 입장을 고수했다.

어도어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며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선행적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와 아티스트가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에 바탕을 둔 것이고, 이를 전제로 상호 동의하여 합의한 것이

전속계약”이라며 “이 기본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투자라는 이름의 전적인 신뢰를 보낸 회사의 노력은 무력해지고 어디에서도 보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뉴진스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라고, 어도어와 함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저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저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음해하고 역바이럴 하는 등 각종 방해를 시도 하였으며 어도어는 경영진이 바뀐 뒤 이를 방조했다”며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을 고려할 때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신뢰 관계의 파탄과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5년 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토로했다. 뉴진스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 어도어는 저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며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예상되지만, 저희는 건강한 음악 활동을 통해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내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오후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0시부로 어도

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멤버들은 하이브와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다겸 기자

trdk0114@mk.co.kr



걸그룹 뉴진스가 11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퍼레이스웨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연합뉴스, YTN]

© ABS 오일신문

오일신문은 집에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09. / No. 11

기사의 저작권은 ABS, 오일 신문에 있습니다.